

# 광주매일신문



데9032호 대표전화(062) 650 - 2000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음력 9월 2일)

# '국가AI컴퓨팅센터'도전남으로…삼성SDS, '전남' 단독 응찰

과기부 공모 '솔라시도' 부지 특정 참여 道, 오픈AI·SK 이어 또 다시 유치 유력 유치 공들인 광주시 고배 후폭풍 불가피 강기정 시장 '눈물 호소'에도 선택 못받아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전남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그동안 '국가AI컴퓨팅센터'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눈물로 호소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전남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만큼 광주·전남지역사회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사업 신청 접 수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 주도 컨소시엄이 부 지를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로 특정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동안 삼성SDS 컨소시엄은 광주와 전남, 전북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해 왔고 결국 전남으로 결정한 뒤 응모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40 분께 삼성SDS측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에 전남도를 컨소시엄 파트너로 선정해 신청했 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부도 공모 마감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SDS 컨소시엄 1개가 참여했다"고 공 식 발표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한 만큼 사실상 삼성 측이 선택한 지자체인 전남이 유치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 '솔라시도'

삼성SDS 컨소시엄이 21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후보지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특정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공모에 단독 응찰했다. 사진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제시한 해남 솔라시도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료와 부지 등 입지 조건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성SDS 컨소시엄은 정무적 조건, 정책적 판단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입지 여건만 놓고 후보지를 검토해 전남을 낙점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삼성SDS, 한전 등 관계 기관과 '물 밑작업'을 벌여왔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면

담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삼성SDS 측을 직접 만나 전남을 후보지로 공모에 참여할 경우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 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 SDS 측은 지난달 전남도에 기업도시 솔라시도 내에 154Kv 변전소 구축 시기, 변전소와 인접한 부지제공이 가능한지 등도 타진했다.

삼성 SDS는 이달 10일엔 솔라시도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공업용수 공급 방안, 정주 여건 등을 전남도와 논의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에 AI 기업 오픈AI와 SK

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이어, 국가 주도의 국가A I컴퓨팅센터 유치까지 최종 성사시켜 에너지 신 도시 조성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까지는 11월 중 기술·정책 평가(1단계), 12월 금융 심사(2단계) 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참여자를 선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SPC 출범을 마치고 실시협약과 출자를 완료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 이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 마감을 앞두고 시청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광주 유치를 호소했 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강 시장은 "광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도 국가AI컴퓨팅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은 민간데이터 센터 유치와 달리,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인프라 를 구축하는 일이고,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한 디 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기업의 이해관계로만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복 받친 듯 중간에 눈물을 보이며 글을 읽지 못하기 도 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 성명을 발표해 광주 유치를 호소했다.

광주시의원 일동은 "광주는 지난 7년간 AI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온 도시이며 AI 데이터센터를 실제로 운영해 온 도시"라며 "광주 유치는 국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해야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전방위적인 총력전을 펼쳐온 광주시가 전남도에 밀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양 지역 간 상생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 나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최근 광주시 관계자들이 국가AI컴퓨팅 센터 문제를 놓고 전남도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는 지적이다. /김재정·변은진기자

## 姜시장 "군공항이전부지 '광주형실리콘밸리' 개발"

#### "국가인센티브·기부대양여 재원 확보"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 종전 부지에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적한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을 밝혔다.

강 시장은 21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심 창욱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 부지 활용 방 안을 묻자, "AI와 빅테크 등 신성장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주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시 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터전으로 설 계하겠다"고 답했다.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관련, 강 시장은 "광 주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을 위해 전남 도와 협력해 무안 통합공항 건설 방향을 정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지원 사 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그동안 무안군 양파농가 일손돕기, 소음대책 토론회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무안군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며 "또한 국가 차원의 지 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난 3년 간 정부 와 국회를 상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평했다.

강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이재명 정

부에서) 대통령실 6자 TF가 구성돼 군공항 이전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며 "최근 무안군이조건 없는 6자 TF 참여를 확약했고 무안군의 지역 여론도 찬성 쪽으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시장은 무안군 지원사업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실 산하 TF를 중심으로 중앙정 부와 전남도, 광주시가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 라며 "국가 인센티브, 기부 대 양여 잔여분, 광 주시 자체 조달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여수세계섬박람회, 관광공사 협조 절실"

#### 조계원 "지역 MICE산업 예산 감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이 지역 기반 마이스(MICE, 복합전시) 산업 역량을 세계 무대에 증명할 절호의기회"라며 한국관광공사에 전략 홍보·국제 세일즈등의 전면가동을 요구했다.

'2026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5일부터 11 월4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된다.

조 의원은 "기후·자원·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섬의 생태·문화·역사·관광·미래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모색하는 정부 공인 국제행사"라며 "박람회를 지역 이벤트로 축소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날 예산 배분의 불 균형도 언급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 Today

임대료·인건비부담편의점이줄어든다 12면

내달1일 광주 공연 앞둔 가수 안치환 14

성적 부진에도 '100만 관중은 넘었다' 16면



+